

# 전남TP, 중기부 경영실적평가 '최우수 S등급' 달성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두각  
리더십·경영전략 등 높은 점수  
“지역산업발전·일자리 창출 노력”

전남테크노파크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이후 또다시 S등급을 받아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중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일 전남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전남TP는 11개 주요 평가지표 중 ▲장비 활용 및 관리 ▲기업성장단계 지원 ▲중점추진분야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리더십·경영전략 ▲윤리·인권경영 ▲정책기여도 분야에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리더십·경영전략 분야(만점 13점)에서는 12.5를 획득했다. 전국 평균은 11.15점

이다.

세부 평가내용으로는 중앙정부 정책, 지자체의 정책, 대·내외적 경영환경, 지역 현안에 대해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적합한 경영전략 수립 및 기반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통합적 지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동국 원장의 ▲적극적인 경영의지 표명 ▲기관 주요 현안과제 해결 및 중·장기적 경영전략 ▲직원 근로환경 개선 ▲전남 속원사업 해결 ▲친환경 ESG 경영체계구축 등 전남 TP만의 선도적인 역할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 출중 등이 리더십 확립에 의한 실적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됐다.

이외에도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노력으로 ISO37001 사후심사 통과, 2021년 전남도 부패방지 시책 최우수상 수상,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사후심사 통과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노력도 호평을 받았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TP가 경영실적평가 S등급을 달성한 것은 여러 대내



전남테크노파크는 1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1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전남도 중소기업들과 전남TP 전체 구성원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전남도 민선 8기 중점과제를

반영해 혁신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지원체계를 지속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홍승현 기자

## 8월 무역적자 94억7천만 달러...66년만 최대

14년만 처음 5개월째 적자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8월 1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무역적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졌는데 이는 14년여 만에 처음이다.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지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수입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이차전지는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6.6% 늘었고, 수입은 661억5,000만

달러로 28.2% 증가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무역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최대치다.

또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는데 5개월 연속 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만이다.

/연합뉴스

## KT, 디지털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미소능력개발센터와 MOU

정부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KT 전남전북광역본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는 ㈜미소능력개발센터(대표 강현신·미라클평생교육원)와 교육 사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KT AI를 기반으로 하는 코딩교육이 미래 인재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인증평가에서 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미소능력개발센터 미라클평생교육원은 온라인 콘텐츠 전 과정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AI 교육 관리 시스템 개발, 교육장 구축 등 기술 개발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전문교육기관이다.

KT 전남전북법인과고객본부장 류평 상무는 “호남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불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이 결국 불발됐다.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중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1주택자 9만 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 10만명은 중부세 증가를 면했고, 소득이 적은 노인이나 주택 1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은 중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

9만3천명 올해 세금 납부해야  
이사·상속 10만명 증가 면해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중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

(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두는 만큼,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중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1세대 1주택 3억원 특별공제안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중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정부·여당 안인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기존 공시가 11억원이 유지된다. /연합뉴스

## 호남통계청장, 추석 앞두고 대인시장 방문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파악

김태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이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인시장을 방문했다. <사진>

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통시장 방문은 명절 성수품인 쌀, 과일, 돼지고기, 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최근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물가동향 점검은 고물가 지속으로 명절 물가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날 김 청장은 통계조사 대상처에서 곡물과 신선식품 등 명절 성수품을 구매한 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청장은 “기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시장 이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